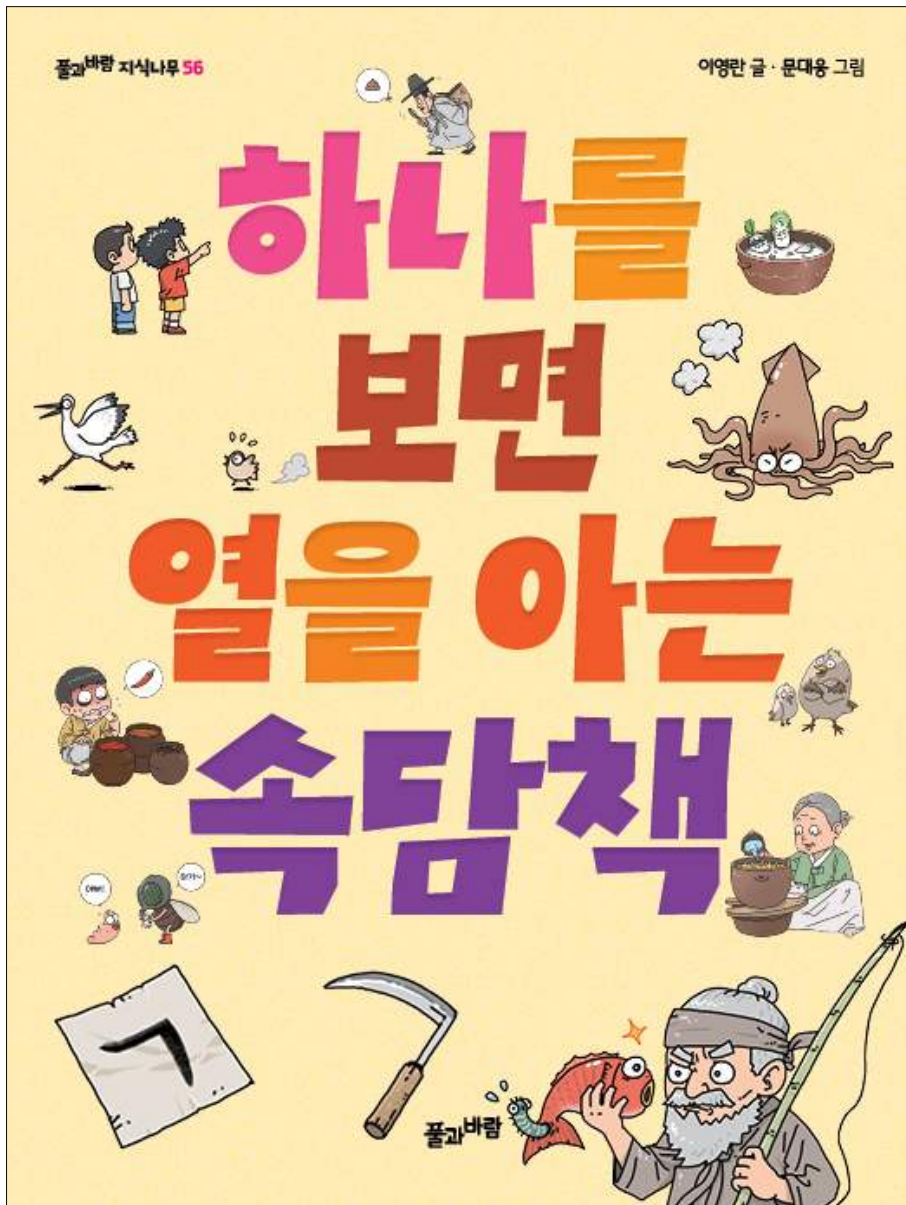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속담책》 독서지도안



속담 하나를 알면 열 가지 세상 지식이 따라온다!
문해력의 기초인 속담으로 어휘, 역사, 과학을 넘나드는 국어책!

- 작가_ 이영란 글, 문대웅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이런 속담을 쓰지만,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어 학습에서도 이론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휘 하나, 속담 한 구절을 배울 때 그 배경과 원리를 제대로 깨친 아이는 수십 가지의 새로운 상황에도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해력의 힘’을 갖게 되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속담책》은 우리말의 정수인 ‘속담’을 화두로 삼아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무한히 확장해 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국어책입니다. 어린이들이 낯설게 느끼는 속담 한 구절을 시작으로,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역사, 과학, 문화, 언어적 상식 등 열 가지 이상의 풍부한 지식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하나의 속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 과학과 역사, 자연과 사회를 함께 살펴보고 속담이 왜 생겨났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짧은 문장 속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통찰이 가득합니다. 이 책은 열두 가지 필수 속담을 통해 어휘력의 확장은 물론,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 줍니다.

재치 있는 삽화와 친절한 풀이를 따라가다 보면 국어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글을 깊이 이해하는 독해력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표현력까지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책 통해 어린이들이 국어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길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4, 5~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3학년 1학기 국어 2. 분명하고 유창하게
 - 4.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 4학년 1학기 국어 4.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 5학년 1학기 국어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 6학년 1학기 국어 1. 비유하는 표현
 - 5. 속담을 활용해요
 - 7. 우리말을 가꾸어요
- 6학년 2학기 국어 2.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 지도 요점 :

이 책은 속담의 유래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장마다 속담 하나에서 출발해 ‘무엇일까?’, ‘왜일까?’, ‘정말 그럴까?’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지식을 확장합니다. 속담 속에 숨은 생활사와 과학, 역사를 하나씩 꺼내어 보여 줌으로써, 독자는 속담을 ‘옛말’이 아닌 ‘지금도 통하는 지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책 속 속담 중 가장 재미있던 속담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어물전 망신은 다음 중 누가 시키나요?



- ① 꼴뚜기
- ② 오징어
- ③ 고등어
- ④ 새우

→ _____

(2)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속담은 어떤 뜻인가요?



- ① 발 없는 동물 말이 날아다닌다.
- ② 말이 아주 빠르게 퍼져 나간다.
- ③ 열심히 달려야 빨리 갈 수 있다.
- ④ 보잘것없어 보여도 필요할 때 귀하다.

→ _____

(3) 우리말에 동음이의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속담이 많아서
- ② 우리말은 뜻글자여서
- ③ 소리는 같아도 뜻이 다른 단어가 없어서
- ④ 우리말과 한자어를 함께 써왔기 때문에

→ _____

(4) '아닌 밤중에 홍두깨'는 어떤 상황에 쓰는 표현인가요?



- ①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 ②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부를 때
- ③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 ④ 흰색 옷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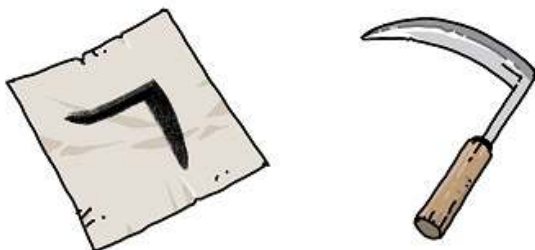
(5) '뺨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 ①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따라 할 때
- ② 남이 한다고 힘겨운 일을 억지로 할 때
- ③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를 때
- ④ 떡을 먹었을 때



(6) 낫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 ① 한글을 배울 때 쓰는 기구
- ② 밥 할 때 쓰는 도구
- ③ 달리기할 때 쓰는 도구
- ④ 주로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농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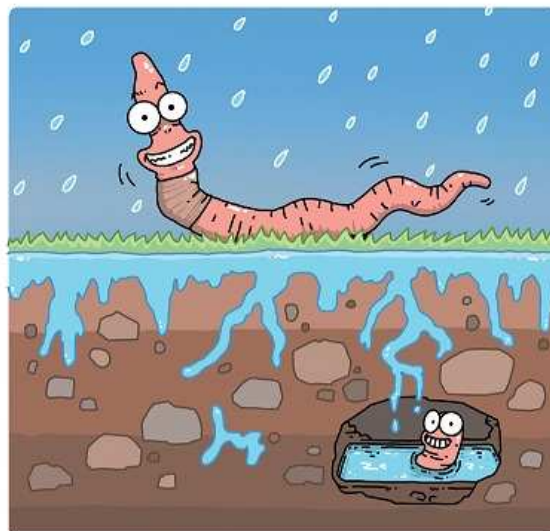


4. 확장활동

(1) 이 책은 속담을 단순히 외우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생활·과학·역사·지혜가 응축된 지식의 출발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의 속담에서 출발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농기구와 음식, 미생물과 기생충, 문자와 사회 구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 책의 실린 속담 중에서 현대에도 가장 많이 쓰일 거 같은 속담은 무엇이었나요?



(2)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흔히 처음 하는 일은 주저하게 되는데, 일단 겪고 나면 그 자체로 경험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 진답니다. 어떤 어려움에 놓인 친구에게 이 속담을 이야기해 주고 싶나요?



(3)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은 어떤 때 쓰는 말일까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꿀뚜기 | (2) ② 말이 아주 빠르게 퍼져 나간다. | (3) ④ 우리말과 한자어를 함께 써왔기 때문에 | (4) ③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 (5) ② 남이 한다고 힘겨운 일을 억지로 할 때 | (6) ④ 주로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농기구

확장활동

- (1)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가 재미있어 많이 쓰일 거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많이 이용할 거 같아요. 등
- (2) 자전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친구에게 용기 내라고 속담을 알려 주고 싶어요.
태권도 심사를 앞둔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등
- (3)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는데 지레짐작해서 기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엄마 심부름을 다녀와서 거스름돈을 용돈으로 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때 쓸 수 있어요. 등